다산포럼

트럼프 리스크와 다자주의의 가치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병오년 들어서 외신은 대부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인 행보로 채워지고 있다. 마약 밀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군사공격하고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유엔을 비롯한 다자주의에 반감을 갖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급기야 올 1월 들어 트럼프 정부는 66개에 달하는 유엔 안팎의 국제기구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유엔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각각 22%, 25%를 책임져온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활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기후, 보건, 분쟁, 무역 등 수많은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인력과 재정이 더 필요한 형국인데, 트럼프는 오히려 국방비 증액만 주장할 뿐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유럽 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그 회원국들의 이익도 침범할 태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위험대응센터(Hybrid CoE)도 탈퇴하였다. 급기야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획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방국들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는 명백히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를 촉진함은 물론 지구촌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보의 배경으로 첫째, 개인 변수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상업주의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자신의 이익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인 결정과 필요시 물리적인 수단까지 활용해 목적을 관철하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는 미국 외교안보정책 결정집단이 말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적 판단이다. 러-우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이는 친이스라엘 노선과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말이다. 베네수엘라 공격과 그린란드 획득 선언도 석유 등 주요 자원 확보를 통한 미국 내 물가 안정과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통한 패권 유지가 목적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반대하고 동맹·우방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 왔다. 집권 2기 시작하자마자 쏘아 올린 관세폭탄 선언이 미국 우선주의의 또다른 출발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협력의 비용과 동맹·우방국들에 제공한 안보부담을 줄이고, 그 편익을 미국인(유권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영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제법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포퓰리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냉전 해체 직후인 1993년 하버드대학의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는 '다자주의가 중요하다(Multilateralsm Matters)'는 책을 출간했다. 오늘날엔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엔 냉전시대의 동맹과 같은 양자주의 관행 탓에 반신반의했다.

러기는 국제질서의 변동, 즉 양극체제의 붕괴 및 일극체제의 등장이 증대하는 국제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국제 다자협력의 사례를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성공, 실패 사례를 균형적으로 살피면서 다자주의의 유용성을 제안했다. 냉전 해체 이후 경제의 세계화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형국이었으나, 그것이 공존공영으로 갈지 아니면 승자독식의 길로 나아갈지는 불확실했다. 러기는 그 대책으로 다자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구촌의 실존적 위기가 뚜렷해진 오늘날 다자주의는 러기가 생각한 정책대안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트럼프가 보이는 행태는 미국의 패권 약화에 대한 불안감을 일탈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그만큼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트럼프의 일련의 행동은 시대착오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 미국인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도 분쟁 현장에서 평화 요원으로, 식수가 없고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국에서 인도주의 및 개발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변화와 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동맹을 성찰하는 동시에 평화를 깊이 사유할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다.

NGO 칼럼

행복을 만드는 손길, 그 주인공은 당신

오성국
구세군 광주본영 사관

지난 겨울, 광주 시내 세 곳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은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던 거리에서도 자선냄비 모금함 앞에 잠시 멈춰 선 시민들의 손길을 통해, 단순한 동전과 지폐를 넘어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차곡차곡 모였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광주 시민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렇게 모인 사랑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생명의 숨결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의 씨앗이 됐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한 60대 중년 신사는 "'자선냄비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기부하고 가라'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며 적지 않은 금액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그 순간 거리의 자선냄비가 세대를 뛰어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이웃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거리의 자선냄비는 그 식어가는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냄비는 한 편의 아름다운 사랑 영화와도 같다.

광산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는 '찾아가는 자선냄비' 활동이 진행됐다. 말 그대로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는 자선냄비였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안고 현장을 찾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해맑게 웃으며 손수 예쁘게 만든 봉투에 돈을 넣어 성금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이 순간의 기억을 품고 훗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의 빛을 보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나눔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아이들이 넣은 그 작은 봉투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행복한 세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자선냄비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바로 그 사랑을 모으고, 다시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 기독교 단체로, '영혼 구원과 사회봉사'라는 사명 아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차별 없이 전하고 있다. 자선냄비 활동 역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구세군의 사역이다. 한국에서는 1928년부터 자선냄비를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자선냄비 모금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드는 연대의 상징이다. 지난 97년 동안 자선냄비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랑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왔다. 지난해 역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주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

광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은 누군가의 겨울을 견디게 했고,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결코 큰 금액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어려운 이웃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 첫걸음은 사랑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사랑의 나눔은 행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나누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앞으로도 구세군은 광주 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 가는 이 길에 계속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의 종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

기 고

노변한담(爐邊閑談)

류진창
㈜외이드팜 회장·수필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 한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내리고, 겨울은 매서운 혹한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 한 봄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은 길다.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화롯가에 모여앉아 이런저런 세상사는 이야기가 있는 그리운 계절이 찾아왔다.

TV 매체는 우리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보기 싫어졌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놀음이 꼴 보기 싫어 서다. 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서 헐뜯는 일이 직업인 양한다. 흡사 흡혈귀의 손톱으로 상대의 목덜미를 노리는 광경이 보기 싫은 것이다. 어느 곳이든 배려와 덕치(德治)는 찾아볼 수 없다. 덕치는 지도자의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덕치는 외톨이가 된다. 지도자는 권위나 법률보다 인격과 도덕성이 중심이 되는 통치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핏대 올리며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그 지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다시 쳐넣겠다는 협박이라 이해되기 때문이다.

법은 추상같이 엄존하여 사회 질서 확립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법은 정의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법은 자유를 지키며 누구나 차별 없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목적으로 사회 전체의 평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법원 최고 수장이 저질러 놓고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그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죄로 탄핵 당해 권좌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 한마디 없다. 국민소득이 어떻고 주가지수가 얼마 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명색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일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오리발 내미는 상황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슴이 아프지만, 민족 배신자라 간주하고 싶어진다. 내란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항변이나 변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법의 테두리라 하지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묵비권이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저 그냥 그렇고 그런 저급인생들이 저질의 코미디를 벌이는 수준이라 치부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

백범은 만약 한발의 총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민족의 뒤통수에 총질하는 민족 배신자의 가슴을 겨누고 싶다 하였다.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겠냐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사회적 신뢰에 초점을 둬야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다음으로 밀린다. 정치만 삼류라는 30년 전 유력 기업인의 말이 지금까지 유효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4 권부라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정론 직필을 표방해야 하는 언론 매체도 좌 편향 우 편향 상업화되었다고 지적해도 뻔뻔한 모습으로 같은 얼굴을 내미니, 의지할 곳이 허망하게 무너진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세계 제1의 조선 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4면이 꽉 막힌 나라다. 차로 달려 한나절도 안 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 이를 두고 세계인들은 불가사의한 일이 동방의 손톱만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탄한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보여주는 쾌거로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

내란의 그 날 탱크를 온몸으로 막아낸 민주주의에 세계인들은 경의를 표한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상위를 차지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물러나면 재임 중 비리를 찾아내 법정에 세워 추상같이 단죄하였던 우리 국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참 이상한 나라라며 본보기로 삼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의 지도자 전직 대통령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민주주의는 뿌리 없는 나무같이 허약하다"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난맥상은 더 튼실한 외양간을 짓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社 說

시·도 통합, 지역소멸위기 극복 계기로 삼아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통합을 통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자본과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이 공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지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했으며, 이어 경북이 두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약 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북, 강원, 전북이 뒤를 잇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지역들은 청년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생산성 저하와 동시에 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방 소멸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호남권 메가시티가 광주·전남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인구 320만명의 거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만큼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산업·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9일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양 지역은 행정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 동맹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과거 중앙 예산 따내기 경쟁에 매몰됐던 소모적 관계를 청산하고, 320만 시도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시·도는 그동안 보여왔던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성장의 동력인 '섬' 통해 해양관광 미래 연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을 보유한 지역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섬·어촌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56개 사업에 총 30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524억 원(21%)이 증액된 예산의 정책 핵심은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전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9개 사업에 1832억 원을 집중 투자, LPG 시설 구축과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과 같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어복(어촌복지서비스)' 사업도 추진한다. 열악한 교통 탓에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을 감안,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약 처방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전남도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박람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남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이벤트로 치른다는 구상이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전남 바다의 패러다임을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 글로벌 해양레저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보성에 들어설 해양복합센터를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 토대를 구축하고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매개로 여수 일원에 총 1조 980억 원 규모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계획들이 본 궤도에 올라 현실화되면 전남은 남해안권 해양관광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無等鼓

'착한 사람'

오래 전 한 출판사가 직장인(558명)을 대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착하다는 말에 대해 20.6% 직장인은 '긍정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답변한 반면, 20.4%는 '내가 착하기만 한 걸까'라고 다소 부정적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직장인 12.5%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를 묻는 질문에도 39.4%의 직장인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5.3%의 직장인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 12.4%는 '먼저 양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12.2%나 됐다. 직장인 45.3%는 또 '착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도 응답했다.

'착하게 살아도 괜찮아'(가야마 리카)라는 책을 내며 진행된 설문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흘려넘길 수 없는 내용이다.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는 통념이 익숙해진 시대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생긴 탓이다.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착하다'는 단어의 의미도 '일 못하는, 손해만 보는' 등의 의미로 달라졌다.

그래서일까. 고(故) 안성기 배우의 메시지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얼굴, '국민 배우' 안성기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당부는 '착한 사람'이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고 안성기 배우 영결식에서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한 장남 다빈씨는 "저에게 써준 편지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 같기도 하다"며 고인이 남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고인이 다섯 살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고인은 편지에서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 세상에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썼다.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그런 착한 사람들이 모여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사회이길 소망한다. 올해는.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